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으니”

한국 종교 신뢰도 젊은 세대 ‘20대 최저’

교회학교, 실질적 대책 마련 나서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서 종교기관의 신뢰도가 추락했으며 그중에서도 젊은 연령층에서 종교에 관한 불신이 높게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만 19~69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집단별·기관별 신뢰도를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교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 ‘신뢰한다(약간+매우)’고 답한 비율이 41%이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45%)에 비해 4% 감소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종교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20대(19~29세)가 34%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30대가 39%, 40대 43%, 50대 44%, 60대 4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관별 신뢰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종교기관은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중앙부처와 국회, 의료기관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 지’를 조사한 항목에서 종교기관은 10위에 그쳤다. 의료기관(58%)과 교육기

관(56%), 금융기관(52%)이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종교기관은 41%로 중앙정부 부처와 경찰, TV방송사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데일리굿뉴스는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연령층에서 종교에 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만연해 있으며 이는 교회 학교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갖고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GNPNEWS]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이사야 55:4)

기도 | 하나님, 만민에게 증인이요,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어야 할 교회가 이 땅의 영혼들에게 신뢰를 잃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못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공: WMM

- 모리타니의 수도 누악쇼트 어시장에서

어부들이 모여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오늘은 저 큰 그물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을까? 큰 풍량을 만나지는 않았을까? 바닷가 태생으로 어릴 적부터 고기 잡는 일에 매우 익숙한 어부들이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나의 인생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의

빈 그물질로 지쳐있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부패한 죄인이었다. 그러면서도 선한 열매를 맺어 인정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삶으로 만족하려 했다.

그런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또한 빈 그물질의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회복시켜주셨다. 나를 따라 오라시는 주님의 길을 오늘도 따라나선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도, 나도 가장 기쁘다. [GNPNEWS]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19)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56)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아시나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한 젊은이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받았습시다. 배려심 깊고 따뜻했던 그를 보내며 더욱 안타깝고 애통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 사람이 죽었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를 데려가시나요? 아직 자녀가 어린데, 할 일도 많은데.” 가족들 안에 이런 질문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인간의 불행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답을 기다릴 인내가 없는 인간은, 인간의

불행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악의 방관자, 하나님. 그래서 난 당신을 싫어해요. 이 세상은 당신과 상관없이 돌아가니, 증명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 말도 마시오.”

정말 인간이 겪는 불행은 고통 그 자체일 뿐, 하나님 사랑과 무관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시니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 받아야 할 이유가 그분 안에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

나님이 왜 아들을 잃는 고통을 자청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는데도 스스로 통치권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반역입니다. 사랑의 대상인 당신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런 당신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반역 죄값을 아들의 죽음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해의 샷대질을 오늘도 참으시고 당신과 함께



일러스트= 김경선

고통받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어찌면 고통이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아시아
종교 자유 허용한다는 중국, 온라인 성경판매 금지 2면

기획 |
“하나님께 순종하는 젊은이, 세상 바꿀 수 있다” 3면

인터뷰 | 이주안 집사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다”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지금 주님을 찾자!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아시아

종교 자유 허용한다는 중국, 온라인 성경판매 금지



▶ 성경판매가 금지된 온라인 판매사 '징둥(京東)'의 "죄송합니다, 성경과 관련된 상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출처: 징둥(京東) 화면 캡처)

종교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온라인 서점에서 성경 판매를 금지했다.

뉴시스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서점인 타오바오, 아마존 중국, JD닷컴 등이 최근 성경 판매를 중단했다.

중국인들은 최근 '중국 종교신앙의 자유 보장 정책과 실천백서'를 발간하고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혔

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중국의 사회주의 사회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성경 판매를 중단시킨 것으로 보인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와 트위터에 온라인 서점에서 성경을 구입할 수 없었다는 사례를 게시하는 한편, 성경을 진열대에서 철수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서점주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올렸다.

뉴시스는 4일 "대형 온라인 판매사 징둥(京東)이 이날 '성경'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상품이 보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이슬람 경전 쿠란도 마찬가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된 종교백서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장기간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압제와 이용을 당했다."며 "독립자주적인 교회(관제 교회)는 중국 신앙인이 자발적으로 만든 역사적인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백서는 "중국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은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국 헌법이 확정한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중국인들은 그동안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종교 단체들의 외국자금 모금금지, 일부 지역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선교사를 추방하는 등 기독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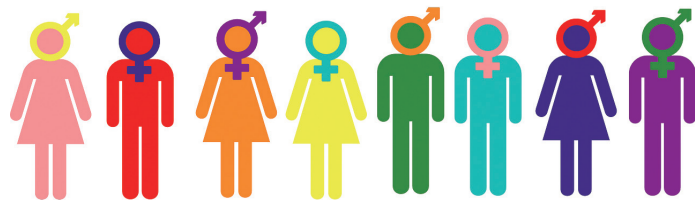
[GNPNEWS]

아메리카

美 청소년 동성애자 비율, 성인보다 3배 높아

미국 청소년 중 동성애자(LGBT)의 비율이 성인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은 지난해 7월 7~18일, 미국 13~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성동성애자·남성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 무신론자 해당 여부와 성적 지향 수용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조사 결과, 13~18세 청소년의 12%는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닌 동성애자 중 하나 이상의 성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월 갤럽에서 미국 성인의 4.1%가 동성애자라고 발표한 것보다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응답자들은 성적 지향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기성세대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응답자 가운데 37%는 성 정체성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들 부모 세대인 X세대(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28% 정도가 동성애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여겼다.

응답자들은 본인이 이성애자라도 다른 성적 지향에 수용적인 태

도를 보였다. 전체 응답 중 '다른 성적 지향을 수용할 수 있다'는 69%, '수용할 수 없다'는 21%, '잘 모르겠다'는 10%였다.

무신론자라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13%로, 앞서 갤럽이 조사한 성인 무신론자 비율(6%)의 배를 넘었다.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9%였으나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명 중 1명이었다. [GNPNEWS]

아시아

충남서 전국 첫 인권조례 폐지... 타지역에서도 확산 조짐



▶ 제 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출처: 충청남도의회 사이트)

충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도가 재의(再議·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요구한 '충남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재의안 처리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위한 정족수(23명)를 넘어 통과됐다. 이날 재의안 가결에 따라 충남도는 5일 이

내에 공포,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례 폐지를 반대해온 안희정 전 지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면서 대법원에 제소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 폐지 움직임이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실제 충남 공주·부여·계룡과 충북 증평군의회 등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3.25 ~ 4.7)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인도, '불가촉천민' 보호법 완화에 거센 시위... 5명 사망

인도에서 이른바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최하층 카스트 '달리트'들이 대법원의 '달리트 보호법규' 완화 결정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충돌, 지금까지 5명이 사망했다고 2일 인도 NDTV가 보도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대우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타파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법을 결정하는 자들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달리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코스타리카, 동성결혼 찬성 여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

동성결혼 찬반이 쟁점으로 부상한 중미 코스타리카 대선 결선투표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여권 후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38)가 60.66%를 득표해 승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하나님. 전 세계로 범람하는 동성애의 물결이 코스타리카를 덮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왜곡된 마음중심이 십자가로 돌아오길 강령합니다.

네팔, 선교활동 처벌 규정 강화

네팔 정부가 선교 활동 처벌 규정을 담은 형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데일리뉴스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종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만 루피(원화 약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네팔 내 종교 유적지나 사원 등지에서 기도와 찬양 등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했다.

주님, 우상 천지인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이 되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이 결정을 통해 인간의 무력함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임이 상기되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4월 16일 ~ 4월 28일

4월 16일~21일

- 4.16~21(매일 0시~24시)
 - ▶ 인천 계양 / 효성동교회 (조**)010-2632-7457
 -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010-7364-9982
 - 4.16~17(매일06시~18시)
 - ▶ 전북 전주 / 전주사론교회 (진**)010-2638-1440
 - 4.16(0시)~18(24시)
 - ▶ 서울 광진구 / 빛과소금교회 (권**)010-7754-1726
 - 4.16~20(매일07~23시)
 - ▶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010-7439-7020
 - 4.16~17,19~20(매일10시~12시)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4.16~17,19~20 (매일10:30분~11:30분)
 - ▶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
 - 4.17~20(매일10시~12시)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 4.19~20(매일14시~22시)
 - ▶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 (박**)010-9331-4039
 - 4.19(10시~12시)
 -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 4.20(10시~14시)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4.20(10시)~21(10시)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4월 23일~28일

- 4.23~28(매일0시~24시)
 - ▶ 경기 부천 / 부천산동교회 (박**)010-3018-5519
 - 4.23~26(매일10시~17시)
 - ▶ 강원 속초 / 속초동역자연합 (최**)010-8373-1273
 - 4.23~24,26~27(매일10시~12시)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4.23~24,26~27 (매일10:30분~11:30분)
 - ▶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
 - 4.24~27(매일10시~12시)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 4.26(10시~12시)
 -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 4.27(10시~14시)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4.27(10시)~28(10시)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하나님께 순종하는 젊은이, 세상 바꿀 수 있다”



출처: 데니슨포럼(www.denisonforum.org)

사무엘 밀스, 대학시절 선교기도모임 결성 루이 브라유, 15세 때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개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학생 시위가 지난달에 열렸다. 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의 거리를 가득 메웠고 800개 이상의 다른 행사들도 미국과 전 세계에서 진행됐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집회는 총기폭력을 줄이는 것을 자신들 세대의 핵심 이슈로 만들겠다고 맹세한 플로리다의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주축했으며 오프라 윈프리, 조지 클루니 부부 및 다른 유명인사들에게서 후원을 받았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용기 있는 젊은 미국인들이 수정 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단체들도 헌법 제2조를 지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행진에 동참했다. 한 참가자는 “나는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말했다.

최초의 총기 사용기록은 1346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약시대에는 총기가 분명히 없었지만 성경은 살인을 금지하면서(출 20:13) 자기 방어를 권장한다(출 22:2-3, 눅 22:36). 무고한 사람들의 보호를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한다(벤전 2:13~14). 그러나 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참조, 행 15:1~31).

우리 사회는 총기폭력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토론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난주 토요일에 행진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첫째,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는 현재 시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누구든지’는 말 그대로 ‘누구든지’이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깎보다’, ‘가치를

떨어뜨리다’라는 뜻이다. 젊은이들은 누구에게도 그들의 삶이나 믿음의 중요성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둘째 명령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라는 것 역시 현재 시제 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말’, ‘행실’, ‘사랑’(타인을 사랑하는), ‘믿음’(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정절’에 있어서 타인들이 그들을 따를 수 있는 방식으로 살라고 하신다.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만약 젊은이들이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셨을 것이다. 역사를 통틀

어, 젊은이들은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학 청년 사무엘 밀스는 해외 선교 장려를 일으킨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졸업 후, 그는 미국 최초의 선교단체를 설립했다. 그 후, 그는 미국성서공회와 다른 선교단체 설립을 도왔다. 그는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해외 선교의 아버지’로 불린다.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는 15세 때 시각장애인들 위한 점자를 개발했고, 그것은 그의 이름을 따서 브라유 점자라고 불린다. 그는 28세 때, 첫 번째 점자책인 3권짜리 역사책을 출판했다.

1960년에 네 명의 대학생들이 흑인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즈버러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백인만 사용 가능’이라고 적힌 카운터에 앉았다. 그것은 흑인 차별 반대를 위한 운동에 불을 지폈고 남부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연좌농성과 시위를 이끌었으며 1964년 공민권법(Civil Rights Act, 인종·피부색·종교·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제정된 연방법)을 통과시키



앞을 볼 수 없음에도 현대식 점자를 만든 루이 브라유

는 길을 마련했다.

1989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학생들이 공산당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였고 당 대표가 곧 사임했다. 그다음 해, 체코는 1946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를 치렀다.

라이언 레작(Ryan Hreljac)은 6세 때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우물을 만들기 결심했다. 라이언의 우물협회(Ryan's Well Foundation)는 현재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수하여 82만4000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열정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열정과 목적이 있다. 목표를 낮추지 마라. 프란시스 찬(Francis Chan)은 옳았다. “우리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별것 아닌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당신의 삶과 영향력의 주인이 되도록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이 타인들을 당신의 구주, 예수님게로 이끌기 위하여 당신의 말과 행동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을 간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미 6:8)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알리스테어 베그(Alistair Begg)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GNPNEWS] 기독교화평문 집 데니슨(출처:데니슨포럼(www.denisonforum.org))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월 100만 원 이상 에이즈 환자 치료비 평생 무료”... “몰라요” 89.5%

한국가족보건협회, “국민 대다수, 에이즈 실태와 심각성 잘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AIDS) 신규 감염 환자가 매년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월 100만 원 이상의 에이즈 환자 치료비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95.7%에 이른다.’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 대표 김지연)는 이 같은 한국의 에이즈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가협이 7일 제46회 보건의 날을 맞아 에이즈 국민의식조사 시행한 결과, 최근 군대와 청소년층에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37%

에 불과했다. 또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숫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5%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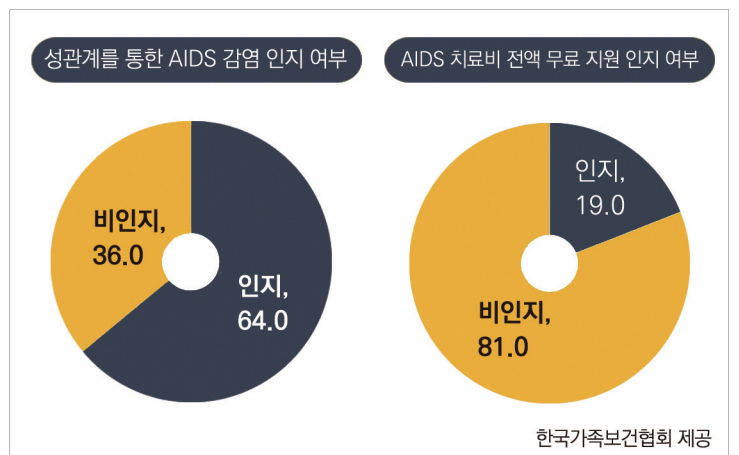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2016년 ‘2016년 HIV/AIDS 신고현황’에 따르면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숫자는 2012년 953명, 2013년 1114명, 2014년 1191명, 2015년 1152명, 2016년 1002명으로 4년 연속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 2016년 신규 내국인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 원인 바이러스) 감염인 1063명 중 남성이 1002명(94.4%)에 달하고, 이들 중 감염경로가 확인된 감염인 모두 성관계로 인한 감염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른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무려 95.7%에 달했다. 에이즈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전체 응답자의 62.1%가 ‘TV,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은 언론 매체’라고 대답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하는 여론조사공정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에이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에이즈 예방 교육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산과 국민 대상 교육을 위해서는 언론 매체들의 정확한 보도가 중요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이즈 감염자의 월평균 치료비가 1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0.5%에 불과했다. 에이즈 감염자의 진료비와 약값 전액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1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한가협의 의뢰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2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2%포인트다. [GNPNEWS]

기획 | 조선선교열전 (19) - 제주도 편

첫 한국인 선교사로 문을 연 제주 '선교행진'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긴 2018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3주년을 맞았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하나님께서 제주선교의 밑그림을 그리시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파송한지 꼭 111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복음을 받은 지 22년 만에 첫 선교사를 파송했다. 조선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파송된 곳은 제주 지역이다. 당시 언어는 물론 문화 등 생활환경이 판이했던 제주는 선교 지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제주 땅에서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 천주교의 흔적은 18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다 1901년 천주교인과 지역주민 사이에 충돌은 이 땅에 큰 아픔을 남겨주었다. 천주교측은 '신축교난'이라고 하는 '이재수의 난'은 수백명의 천주교인과 제주도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으로 소설가 현기영의 '변방에 우짖는 새'로 또 '이재수의 난'이란 이름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한양에서 내려온 봉세관이 힘깨나 쓰는 천주교인을 동원, 세금을 걷으면서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1901년~1904년에 벌인 이 사건 이후, 제주도는 '야소교'에 대한 증오로 반(反)기독교 정서가 짙게 형성되어 더 이상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이 일로 사머니즘이 강한 이 땅이 영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뜻하신 것을 모두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셨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사람의 눈에는 나쁜 소식으로 보이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놀랍도록 선한 일로 바꾸어 쓰셨다.

자국민에 의한 선교지, 제주

당시 외국인 선교사들의 주된 선교전략은 '스테이션 미션(Station Mission)'이었다. 선교지에 필요한 병원과 학교 등을 세우고 그곳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더 이상 외국인이 올 수 없게 된 제주도는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가 시작되었다. 바로 스스로에 의해 다스려지는 '자치(自治)',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自立)', 스스로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는 '자전(自傳)'하는 교회로 운영됐다. 또 그런 사건을 주님은 허락하셨다.

마펏 사무엘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단이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에 참가하여 이같은 한국에 대한 선교보고를 전세계 선교사와 선교전문가들 앞에서 나눴다. 이런 한국교회의 건강한 독립성은 당시 세계 선교계의 큰 이슈와 도전이 되었다.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게 된 제주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들어오도록 주님은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이기풍 목사가 한국교회 첫 선교지



▶ 제 1회 평양장로회 졸업생 중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의 이기풍 목사(위)와 이기풍 목사가 세운 제주의 성내교회 초기 모습(아래)(출처: 리폼드뉴스, 한국기독교회사 photohs.co.kr)

인 제주로 파송되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더욱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다. 제주에서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게 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GNPNEWS]

김성옥 선교사 필자는 2011년 교회개혁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 영역을 섬기던 중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2016년 2월 제주로 보내심을 받아 제주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김인수 지음, 제주 성안교회, 2010)



▶ 신축교난이 일어났던 당시의 제주도 관덕정 앞 모습(출처: <백년전의 한국> (가톨릭출판사))



선교 통신

“그들은 가족 외면에도 불구하고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역지에서 돌아오는 기차역에서 사복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이민국 경찰이라고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 힌두교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킨다는 제보를 받고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는 사람이나?” “아니”라고 대답을 했더니 당신도 한국 사람이니 조심하라며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경찰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힌두교인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당신 같이라며 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본지 자료 사진

그리고 며칠 후 경찰로부터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긴장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기도로 경찰 조사는 잘 마쳤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은

혜가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온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를 더욱 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예배당 증축 감사예배와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힌두교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있는 한국 사람을 찾아다니는 와중에 세례식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감옥으로 보내지든지 아니면 바로 추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4명이 이미 경찰과 법원으로부터 더 이상 힌두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증명을 어렵게 받아낸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서까지 세례를 받기 위해 대가 지불을 하고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경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례식은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

나 그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었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교회의 삶을 통해 더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을 한 치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이기에 더더욱 기대되는 것은 영혼을 향한 열망이 이곳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더더욱 달려가야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부흥의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GNPNEWS]

I국= 배영옥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다”

일산의 한 교회 카페에서 이주안 집사를 만났다. 그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로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성공가도를 달렸다. 직장에서 신우회를 섬기며 직업윤리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어 가족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남겨주고 싶어 일주일에 한 시간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좋은 아버지였다. 그러나 집사가복음 앞에 서게 되면서 허울뿐인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나고 처음 들었던 생각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교육받고 자라왔습니다. 교회에서도 만 35세가 지나고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3년 후 부교역자였던 목사님이 함께 개척을 하자고 해서 목사님 가정과 우리 가정의 교회를 개척해 13년을 섬겼습니다. 젊을 때부터 교회 일이라면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칭찬받았고 제 인생에 별 흠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한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지치셨는지 목회를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섯 가정의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이럴 바에는 각자 큰 교회로 흩어지자고 했습니다. 모두 자라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한계를 느꼈던 것입니다.”

목사님과 동역한 개척교회 “10년 만에 중단하다”

그는 매우 갈급했다.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되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자신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한 복음 전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복음훈련과정에 참석했다. “강의를 듣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순절 기간이면 ‘주님, 죄의 무게를 좀 알게 해주세요. 죄의 무게가 안 느껴지니까 은혜를 실감할 수가 없어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달아졌습니다. 상황만 되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상황을 모면하고 잘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나.



이주안 집사(승리다문화교회)

인정과 평판에 목을 매고 있는 나는 사람이 야한 동영상 보내면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보내지 마라.’고 하면서도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스팸메일 같은 메일의 음란한 영상은 호기심을 내는 나. 내가 어떤 죄인인지 진리를 듣고 나니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이제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지 않게 됐습니다. 이전 죄의 무게를 알려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니까요.”

복음을 그렇게 깨달았지만,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모든 것을 버릴 수 없었던 부자 관원처럼 자기 삶의 터전을 놓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복음을 기쁨으로 만났지만, 강의 도중 선교사로 폴링 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좋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도 정리해야 하고 가족과도 상의해야 한다면 분위기엔 휩쓸려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에 확실한 사인을 주시면 내가 그때 순종하겠다고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훗날, 퇴직 후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던 인생의 기로가 찾아왔다. 회사에서는 정식 임원의 길을 제시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더 좋은 조건에 더 회사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만약 그 제안을 거절하면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떠나는 것이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놓고 고민하던 그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이 드러난 거겠지요?(웃음) 회사를 그만두고 복음훈련과정에서 권면해준 대로 로마서와 에베소서 50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주님이 로마서 10장 13~15절 말씀으로 계속 도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인가, 세상인가? “주님을 택하다”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마음의 부담이 계속 왔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년을 다 읽을 즈음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니 함께 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인가 생각하며 다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다시 이전과 같은 삶이 시작됐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해 세계 동향과 미국 증시를 살펴보고 한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오늘의 전망과 계획에 대해 회의를 한다. 9시에 장이 열리면 시시각각 변하는 증시를 살피고 장이 마칠 때쯤이면 거래처를 방문해 회사의 사정을 살피고 저녁에 돌아와 내용을 정리하고 퇴근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집에 가면 8시 뉴스, 9시 뉴스, 10시 뉴스 할 것 없이 모든 뉴스를 보며 세계의 동향을 살피다 잠이 든다.

“1년 넘게 일하는 동안 업무에서는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놀림이 계속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한 선교사님이 남긴 말을 책을 통해 보며 더욱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회사를 몇 번이고 그만두려고 했다. 신학을 하겠다고 처음 직장에 사표를 냈지만 수리가 되지 않았다. 때마침 모든 가족이 반대를 했다. “모든 일엔 때가

있고 각 사람의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는 그때 주저앉았다.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일찍부터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반드시 붙어야 하는 시험에 떨어지면서 절망 중 별 생각 없이 찾아가 교회 부흥회에서 주님을 만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도망쳐 나왔다. 계속 거기 있으면 다른 일로 자신을 부를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다.

“저는 주님이 부를 때마다 계속 물러섰습니다. 복음을 만나고서도 선교사로 부르실 때 도망쳤고, 로마서 말씀으로 도전했을 때도 회사로 도망쳤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쉰 살이 되기 전에는 결론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선교를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선교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선교훈련을 가장 세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훈련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떨어졌습니다. 선교를 가겠다고 직장도 그만뒀는데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임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새벽기도를 갔는데 주님이 ‘내게 맡겨라. 나를 따라오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나는 불신자였구나. 그동안 내 뜻대로, 내가 내린 결론대로 살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안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없어도 크게 지장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 안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지 보았습니다. 주님이 앉아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주님께 주권을 내려놓겠다는 고백을 드리며 주님이 불러주시는 각종 선교훈련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훈련을 받는 동안 주님은 그의 마음의 여지를 제하시며 그를 ‘무익한 종’으로 만들어가셨다. “훈련을 받는 내내 주님은 ‘순종 할거야? 불순종할거야?’를 물으시며 주님께 순종만 할 수 있게 훈련 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인 아내는 열심히 직장생활 하고 있으니 생활은 그렇게 하고 나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매주의 강의를 통해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사는 삶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선교훈련을 받으며 “순종을 결단하다”

공동체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펀드매니저는 모든 경제상황과 해외 동향을 분석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의 패턴이 익숙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태도로 대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제 직업 때문이 아니라 교만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되나?’ 훈련을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다시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주님으로 충분한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모습이 어떠한 주님으로 충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훈련을 통해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셨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김무종이라는 선교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 이름이 너무 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세이를 쓰면서 평평 울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어려움,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은 바보 같은데, 난 바보가 아닌 것 같은 마음의 한 자락의 여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내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선교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그는 다음 걸음을 주님께 구했다. 그러나 주님은 ‘평생 나랑 교제하자.’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주셨다.

“평생 교제하자니요. 주님! 사람들의 눈길이 또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잖아요.’ 선교훈련까지 받고 와서 집에서 묵상만 하고 있자니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면에 계속)



▶ 해외 아웃리치에서 지체들과 함께 선교지 공사 현장에서 섬기는 이주안 집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언약갱신 (6)

바로 지금 주님을 찾자!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용쓰고 애쓰는 순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무능하다고 결론내고 나에게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 비로소 주님을 전심으로 부르게 된다.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관찮다고 하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관찮은 것이다. 눈을 들어 끝까지 주를 앙망하라.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평안과 승리와 영광이 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자. 복음을 취하자! 그리고 단순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말씀해주는 분이시며 동시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자,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 세상은 변화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여한 없이 순종하자. 주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길 하려고 하지 말라. 주님이 '하라'하시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언약함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언약함을 계속 경험해야만 나의 가능성이 없음을 받아들이고 절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바른길을 가게 된 이유는 오직 주의 은혜라는 말 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계획한 인생의 길에 아주 작은 문제만 만나도 해결 못하는 우리를 볼 때, 모든 것은 결국 모두 주님 은혜 아닌

가.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지.'하는 막연한 믿음까지도 신실한 주의 은혜는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셨다. 과연 에벤에셀,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자.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 나는 주님을 잊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복음을 만날 가능성이 0%인 인생에 주님을 만난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의미가 있다. 반드시 이 복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내 자아의 유희와 병든 자아에 대한 시선만 거둬버리자.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주 안에서 하나 된 동맹군들이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일러스트= 노주나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늘의 가치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나 잡아먹고 너 살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자. 예수 생명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을 드리는 이 삶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으로 오직 자기에게 미쳐 사는 세속의 가

치를 이겨내고, 때로는 언약함으로 잘못 선택한 것도 전능하신 주님이 선으로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자. 이제 결론을 내자! 우리의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계속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기 때문이다. 원래 절망밖에 할 수 없는 자에게 무슨 소망을 찾는가. 원래 가능성이 없고 자격도 없는 자가 바로 나 아닌가. 그러므로 바로 지금! 주님을 찾자!(2016년 8월 메시지 정리).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 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복음의 삶을 위한 소식지 시리즈 2

Life in the Gospel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가?”

이 전도지는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수 있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쉽게 들고 다니며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지 규격 : 182X157mm(B5사이즈)
가격 : 100매(10,000원) 이상 주문 가능

복음과 기도미디어 “오직 믿음” 시리즈

2017순회복음집회 오디오 CD

로마서 1:16-17

오디오CD - A/B

Track1 (00:00-22:56)

Track2 (22:56-43:34)

김용의 선교사

GNM-032CA

영원한 운명을 바꾸게 되는 믿음! 종교개혁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의 핵심이 되는 오직 믿음. 두려운 경고이자 눈물겨운 감격스런 초대가 여기 있다.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오디오 CD(2장 한세트) 6,000원
약 20분씩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긴과 보이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것이면 충분하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의 자리’라는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낙도라는 섬에서 성도 한, 두 명을 위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선교사의 삶이었지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지내는 사람이 선교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국내든, 해외든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됐습니다.”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나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교회 직분도 맡아 섬기고 직장에서도 신우회 회장과 총무로 섬겼던 제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상황이 되면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퇴사는 했지만 훈련을 받고 나서 신우회를 계속 섬겼습니다. 후배들을 찾아가서 매주 수요일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나누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교제를 했습니다. 후배들의 모습을 보니 나와 너무 똑같습니다. 주시각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죠. 더욱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는 후배들이 진지하게 신앙에 관해 물어오기도 하고 교회를 아주 싫어하던 선배도 자녀가 교회를 다닌다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주님이 언젠간 그들을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훈련을 받는 동안 13년간 섬기던 개척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 그는 언약하고 정제되어 있던 동지를 흩어 각자의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그들은 각자 부르신 곳으로 흩어졌다. 이 집사는 다문 화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된다. [GNPNEWS] Y.K.

* 이어지는 믿음의 다음 이야기는 본지 인터넷 신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해외 아웃리치 현장에서 다음세대 어린이들과 함께한 이주안 집사



“끝없는 사막을 통해 삭막한 내 마음을 보게 됐다”

청년기의 뜨거웠던 영혼 구원의 열정을 잊고, 결혼 후 가족부양에 집중하면서 언제부턴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전혀 상관없이 가면을 쓴 채,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철저하게 살아왔다. 때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도 해보고 헌신도 해봤지만 깊고 견고한 '나'라는 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교회에서 여러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어갔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1%를 뺀 나머지 99%만 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지쳐서 숨이 간당간당 할 때, 어머니로부터 선교 훈련에 다닐 것을 권유 받았다. 순간 갈망이 일어났다. 어디서부터 주님과 끊어졌는지 찾고 싶었다. 즉시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을 보고 기다림 끝에 약 5개월간의 훈련이 시작됐다. 훈련 마지막 과정인 아웃리치를 위해 어렵게 휴가를 신청하고 팀 모임에 나갔다. 주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 반, '사실 힘들 것이다'라는 격려 반의 말씀을 해주셨다.



일러스트=박남희

그러나 걱정보다는 설레는 마음이었다.

“우 집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야 해.”라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어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함께 하는 지체들은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퍼즐처럼 여겨졌고, 사랑스럽고 보배롭게 느껴졌다.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단 9:19)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

될지 궁금했다.

아웃리치를 떠났다.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해 시내로 들어가니 전쟁을 치르고 난 도시의 느낌이였다. 경적소리, 메카를 향한 이슬람 신자들의 예배가 진행될 때 나오는 5번의 아잔 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우상숭배밖에 남지 않은듯 했다. 그 모습에 나는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테러의 위협으로 일정에는 없었던 흥행을 가게 되었다. 고속도로 주위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지고 있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개천 하나 볼 수 없는 땅에는 검문

소마다 군경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내 모습을 보는 듯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없던 삭막한 마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흘날리던 모래바람과 같았던 마음, 율법주의자로 주변에 상처만 주던 돌산과도 같았던 나.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이런 사막과 같

“선교의 시작은 존재와 사명이 변하는 것이다”

이집트 영혼을 향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사 19:22) 이 말씀을 붙잡고 중보기도를 계속 올려드렸다.

언제 어디서 폭발물을 가슴에 안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순교할 각오를 하며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생각하며 아람 복음화에 이집트가 통로 되도록 기도할 마음

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이 실체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나의 높은 기준으로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상처가 생겼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새삼 다가왔다. 그 사랑처럼 매순간 사랑하기를 결정했다. 비로소 참고 견디어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었다. 선교의 시작은 존재가 변하고 사명이 변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이 되는 그날에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 되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GNPNEWS]

우석 집사(부천만나교회)

* 민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민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부흥을 위하여

중국, 김정은 방중 전후 탈북민 30여 명 검거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은 위법

탈북 이후 중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들 30여 명이 북한 김정은의 방중 전후 일주일 사이에 일제히 검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10대 소녀를 포함한 탈북민 3명이 중국 심양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후 25일 중국 쿤밍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탈북민 4명이 또다시 체포됐다. 또 펜앤드마이크는 31일 김정은의 중국 방문 직후인 29일에도 탈북민 16명이 한꺼번에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이밖에 탈북민 10명도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헌법 제32조에 의하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는 고문, 자의적 감금,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12년 “중국은 국제법,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탈북민 문제를 처리한다.”면서도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한 화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보호 또는 망명을 요청하기 위해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탈북한 뒤 체포되면 중국 경찰서 또는 군사 시설 내 구금시설에 유치되는데 심문 절차가 걸리는 기간에 따라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이 넘게 중국에서 구금된다. 강제 송환 정책 이행업무를 맡은 중국 관리들은 강제 송환자들이 북한에서 겪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모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파악한 1년간의 강제 송환자만 51명에 달하고 특히 2017년 7~8월 한 달 동안 이미 41명의 탈북민들이 집중적으로 강제복송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1988년 10월 비준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그 대상이 난민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하고 있다.

또 난민지위협약 제33조에서 금지한 ‘추방’ 및 ‘송환’에 더해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범죄인 ‘인도’도 금지하고 있다.

고문 금지 및 관련 강제 송환 금지는 국제법상 대표적 강행규범이다. 중국은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발생한 중국계 베트남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에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한 난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한국에 가려고 하거



▶ 2012년 3월 미국 워싱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 복송 규탄 집회에서 중국 공안원이 탈북민을 끌고가는 퍼포먼스 재연 모습(출처: KNS 뉴스통신 캡처)

나 기독교를 접촉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은 공개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데, 이는 중국의 생명권(자유권규약 제6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자유권규약 제14조)를 침해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임신한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낙태와 북한 여성 인신매매 행위 역시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자유권규약 제7조)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자유권규약 제9조) 침해에 해당한다. [GNPNEWS]

복음의 능력

방해꾼! 영적 자만

성령 충만을 열망하는가. 그 열망이 다른 모든 욕구를 몰아낼 정도로 강렬한가. 그때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함과 비례한다.

성령 충만을 받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 중 하나는 ‘영적 자만’이다. 영적 자만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착각한다. 특히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불신앙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갈망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영적 자만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거룩한 삶’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실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준다. 영적 자만은 성령 충만을 막연히 원한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더 원한다. [GNPNEWS]

<철저한 십자가(2011), A.W.토저, 규장각>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조나단 에드워즈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죄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다



이 책은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의 설교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진노하신다. 진노한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으로 던져 넣으실 수밖에 없다. 죄인의 운명은 유향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 위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곳에 떨어질 때 피해서 숨을 곳도 없으며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없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지금 떨어

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악한 자들을 언제든지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무감에 얽매 이거나 곤란한 장애물의 지장도 받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는 날이면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 설교를 하는 에드워즈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이 설교를 국한하고 있지 않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생활 방식을 바꾸고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준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심령이 변화되는 체험을 한 사람,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죄 가운데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복음 앞에 처음 설 때, 나는 스스로 속이는 자였고 변명이 많은 자

였다.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인간 수준으로 이해했다.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죽어도 천국에 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지금 들으면 너무 웃긴 이야기 같은데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와 같았다.

“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일지라도 종교적 열정, 경건의 시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한다 ”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풍부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용서하시고 내 편이 되실 거 같다는 미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 하나에 불과했다. 손을 놓으시면 지옥으로 그대로 떨어질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반역하던 나에게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은혜의 때

를 허락하신 것이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

사람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종잇장만도 못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손은 축 늘 어지고 마음은 초처럼 녹고 말 것이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하나님은 다루고 계신다. 이 다루심이 있는 시간이 은혜의 때이다. 하나님의 저주와 지옥에 대해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던 우리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일인지, 철저히 깨닫도록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이다.

나는 세 아이를 키우면서 진리가 아닌 일에도 강력한 율법을 제시할 때가 있다. 엄마가 갈색 양말을 신으라고 했는데 분홍색 양말을 신었다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여 처벌할 때가 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진노하고 심판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노한 하나님도 그 손에 죄인들을 붙들고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알도록, 다루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데 나는 아

이들을 불순종의 죄악으로 지옥에 넣어버리는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의 원함으로 인해 순종할 수 없는 아이들의 비참한 죄인 됨을 함께 나누고 죄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엄마로 세우시길 기도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즈의 강력한 두 편의 설교를 통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내리막길을 달리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내 죄로 지옥을 향해 달리는 나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눈에는 혐오스러워 지옥으로 넣어 버릴 만큼 진노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다. 또다시 내가 만든 율법이나 나의 옳음으로 마치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은 버린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한다. 온 교회가, 모든 열방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은혜를 전파하는 은혜 입은 자로 서게 하시길 기도한다. 마라나타! [GNPNEWS]

김은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눈 작전'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보, 나 다녀올게요.” 아내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하는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이제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일주일간의 신앙훈련에 참석하는 시간동안 아들을 혼자 돌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아내가 훈련을 결정한 때부터 5박 6일간 육아전쟁을 치르기 위한 대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육아라는 두려움 앞에서 내 존재의 반응은 자기 최선과 열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일단 전쟁을 치르기 위한 보급품을 준비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간식도 충분했다. 다음 작전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장난감, 좋아하는 동영상 보여주고 엄마가 생각날 틈이 없도록 재밌게 놀아줘야 한다. 이것이 내 작전이었다.

아내가 떠나간 방은 적막하기 그지없었다. 아들보다 내가 먼저 아내가 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적막함이 얼마나 지났을까. 낮잠을



일러스트-이수진

자고 일어난 아들이 대번에 엄마를 찾지 시작한다. 안에서 달래줘도 울음이 그치지 않고, 장난감이나 어린이 동영상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나의 육아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은혜의 시절을 준비하고 계셨다.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우리 ‘복음’이와 이 긴 시간을 보내죠?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다고요!’ 주님께 묻고 구할 때, 나는 주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방편이자 놀이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걸 깨달았다. 바로 어마어마하게 쌓인

눈이었다. 엄청난 폭설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온통 눈 세상이었다.

나는 따뜻하고 안전한 방을 나와 아들과 함께 눈 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새 장난감이나 어린이 동영상에는 금방 싫증을 내던 녀석이 몇 시간이고 눈밭에서 재밌게 뛰어놀았다. 눈싸움, 눈사람 만들기, 눈 성 쌓기, 눈으로 할 수 있는 놀이는 다 했다. 그러니 밥도 잘 먹고, 피곤에 지쳐 잠도 잘 잤다!

내가 내 수준에서 저급한 육아 작전을 세우고 있을 바로 그때, 주

님은 나와 아들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수준의 눈 작전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주님의 작전은 언제나 대성공이었다. 아들과 나는 그렇게 5박 6일을 꼬박 은혜의 눈밭에서 뒹굴었다.

5박 6일 눈밭에 뒹굴며 누린 주님의 '계획'

나는 언제까지 나만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 내 계획 말고,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데 내 아이를 돌보는데도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나의 작전은 언제나 실패하지만 주님의 작전은 언제나 성공한다. 아이를 돌보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선교완성의 대업까지 말이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작전에 나를 드리기로 결단한다. 주님은 또 어떤 놀라운 작전을 세우고 계실까? 정말 주님이 기대된다. [GNPNEWS]

이용찬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8. 3. 22 ~ 4. 4 (가나다 순)
개인
김경선 김성훈 김애심 김장일 김혜신 마운정 박숙자 박승은 배종덕 서은철 신영선 안민자 안수경 안현숙 우 석 이난숙 이남준 이관영 장미자 정성민 정영숙 정은채 정해월 조경미 조명숙 조희광 주유순 함우송 무명
교회 및 단체
그루터기교회 김포전원교회 김화제일교회 마중물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산돌교회 샘물교회 시은교회 시흥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열매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빈족기도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